

유니트론텍, 3분기 매출액 643억... 전년比 40.4% 성장

- ▶ 주력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의 견고한 매출 증가세 돋보여
- ▶ IoT 플랫폼 등 4차산업 기반 신성장동력 확보해 나갈 것

<2018-11-14>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 전문 기업 유니트론텍(142210, 대표 남궁선)이 올해 3분기 경영실적 집계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643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 당기순이익 1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40.4% 증가했고, 이익은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변수 속에서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주력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이 견고한 매출 증가세가 실적 상승을 뒷받침했다는 풀이다. 여기에 지난 4월 인수한 (주)오스코의 매출이 연결실적으로 반영되며 3분기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유니트론텍 관계자는 "전방산업 업황 불황에도 불구하고, 납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4분기에는 3분기를 뛰어넘는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존 캐시카우 비즈니스에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IoT 플랫폼 등 신성장동력을 더해 외형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문의 : 유니트론텍 최재형 과장 (02-573-6800)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6011-2000(#138))